

기술분석보고서 IT

나무기술(242040)



작성기관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작성자 양지은 책임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525-77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나무기술(242040)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AI 서비스 기업

기업정보(2025.11.20 기준)

대표자	정철
설립일자	2001.11.13
상장일자	2018.12.11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제품	Cocktail Cloud, SPERO, NCC외

시세정보(2025.11.20)

현재가(원)	1,380
액면가(원)	100
시가총액(억 원)	478
발행주식수(주)	34,606,264
52주 최고가(원)	2,120
52주 최저가(원)	1,220
외국인지분율(%)	2.75
주요주주(%)	
이수병 외5인	18.0

■ 소버린 AI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나무기술(이하 “동사”)은 쿠버네티스(Kubernetes)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Cocktail Cloud(각테일 클라우드)'와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SPERO(스페로)'를 주력으로 하는 클라우드 및 AI 전문 기업이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인프라 효율화를 위한 컨테이너 기술 및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소버린 AI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클라우드 전주기 기술을 보유한 동사의 기술 제품군이 각광받고 있다.

■ 지속적 R&D 기반의 AI-클라우드 융합 기술 기업으로의 성장 가속화

동사는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 오며 클라우드 통합관리,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반 PaaS(Platform as a Service), CMP(Cloud Management Platform)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을 개발해왔다. 최근에는 정부의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NAA(Namu AI Agent)' 등 신제품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실증 기반의 제조 AI 기술을 에너지·물류·바이오 등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기술 주도의 성장이 기대된다.

■ PaaS·CMP 중심 클라우드 시장 확장에 유리한 사업 환경 확보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확산과 함께 국내 보안 규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 지원, 관리 효율화·자동화 수요에 기반하여 PaaS, CMS(Cloud Management Service)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기술 제품은 PaaS, CMS에서 나아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지원 도구(LLMaaS, NAA)까지 확장 가능하며, 클라우드·AI 시장의 성장은 동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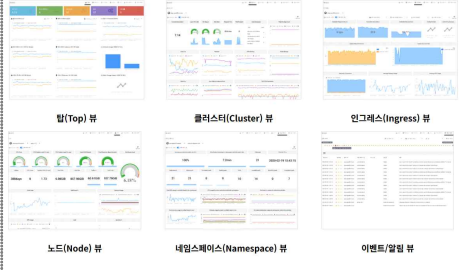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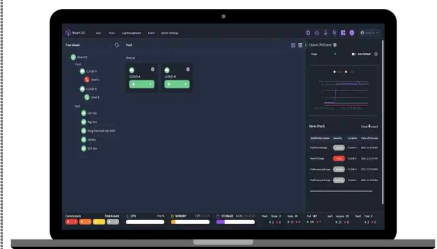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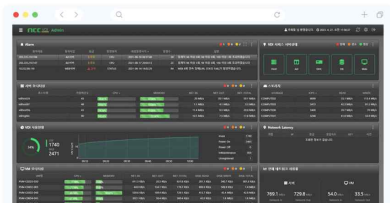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1,062	12.4	22	2.1	6	0.6	0.9	0.7	133.3	10	1,193	202.4	1.7
2023	906	-14.7	-8	-0.8	-35	-3.9	-8.0	-3.5	127.2	-91	1,216	N/A	1.8
2024	914	1.0	-22	-2.4	-55	-6.0	-14.0	-5.5	142.6	-153	1,070	N/A	1.3

기업경쟁력

클라우드, 가상화 핵심 기술 경쟁력	- 국내 최초 컨테이너 기반 네이티브 클라우드 플랫폼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SPERO(스페로)' 제품 보유 - VMware, Inc. 대체 수요 확대 환경 속에서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 제품 각광 - VDI(Virtual Desktop Infra) 기술을 보완하는 가상화 통합 관리 플랫폼 'NCC' 제품
AI/Sovereign AI 차세대 플랫폼 역량	- 소버린 AI가 필요한 시대에 이를 위한 풀스택 아키텍처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전주기 지원 - 'LLMaaS(Namu LaaS)', 'NAA(Namu AI Agent)' 등 차세대 제품 성장 기대
글로벌 시장 확장 및 다양한 산업 레퍼런스	- 공공, 금융, 대기업 중심의 가상화 데스크톱 인프라(VDI) 구축 경험 - 캐나다, 일본, 베트남 등 해외 법인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 생태계 확대 - 마곡 R&D 센터 중심의 R&D 집중 투자로 기술 고도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Cocktail Cloud (칵테일 클라우드)'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Cloud-Native Platform) - 컨테이너 기반의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멀티 클러스터(Multi-cluster), 멀티테넌시(Multi-tenancy), 보안,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전문화된 작업 공간으로 데브옵스(DevOps),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 AI 기능 제공 - GUI 기반 UX, 애플리케이션 구성, 통합 모니터링 기능 제공	
'SPERO(스페로)'	-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관리 플랫폼 -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추상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메타 클라우드 기술 도입 -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SaaS)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 관리, 유지보수하는 SMO(Service Management, Orchestration) 솔루션 역할	
'NCC'	-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를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으로 국내 기업의 환경에 맞게 관리·운영 측면에서 자동화 관리 - 클라우드 기반으로 VDI를 운영하기 위한 워크스페이스 포털(NCC-Workspace) 형태로 발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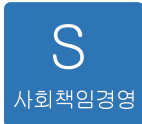
시장경쟁력

AI-클라우드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군 보유	- 공공, 금융, 대기업 중심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 증가에 직접적 수혜 - VMware, Inc 대체수요 증가로 VDI-클라우드 플랫폼 채택 가능성 확대 - LLM-AI 에이전트 기반 기업 자동화 시장 성장에 대비한 선제적 제품군 확보
풍부한 산업 기반 레퍼런스	- 공공, 대기업, 금융 등 분야에서 다수의 레퍼런스 확보 - 스마트시티, AI,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별 솔루션 적용 확장성 보유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 ◎ 당사는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경영 관련 위배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임.
- ◎ 당사는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인증을 기반으로 환경경영 매뉴얼과 방침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음.



- ◎ 당사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을 지원하고 있음.
- ◎ 윤리규정 및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외 필요한 사항(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등)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결산 기준 거버넌스 관련 위배사항에 해당되는 항목 없음.
- ◎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상장기업으로서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여 주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음.

I. 기업 현황

클라우드 PaaS, CMS 분야 대표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 전주기 지원 아키텍처 보유

동사는 2001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클라우드 PaaS, CMS에 해당하는 대표 제품군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 'SPERO(스페로)'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주기에 이르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기술주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회사의 개요

동사는 2001년 11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사는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자체 개발 솔루션 'NCC(NAMU Cloud Center)',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를 핵심 제품군으로 하는 클라우드 및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사업에 전문화된 IT 기업이다.

동사는 2003년 가상화 솔루션 사업을 시작하여 글로벌 선도 업체인 Cloud Software Group(이하 'CSG 사', 구. Citrix)과의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통해 데스크톱 가상화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다. 2015년 CSG 사의 가상화 기술을 기반 환경으로 사용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플랫폼 'NCC'를 자체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만 명 규모의 망 분리 시스템이나 채택 근무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인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를 개발하였고, 2024년 클라우드 자원 통합 및 오케스트레이션 운영 자동화 솔루션인 Cloud Management Platform 'SPERO'를 개발하였으며, 2025년 쿠버네티스 기반 IT 인프라 가상화 솔루션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를 출시하였다.

동사는 2012년 일본 진출을 위해 NAMUTECH JAPAN를 설립하였고, 동사의 사내 연구소로 시작하여 2016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자회사 (주)칵테일아이오(구. 아콘소프트(주))를 통해 AI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G-ICT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나무ICT(주)를 설립하였다. 2020년 베트남 법인인 NAMUTECH VIETNAM, 싱가포르 법인인 NAMUTECH SINGAPORE 등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였다.

동사는 2018년 12월 SPAC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1. 동사 주요 연혁

일자	연혁 내용
2001년 11월	나무정보통신 설립
2002년 1월	한국후지쯔 공인파트너 체결
2006년 1월	삼성전자 공식 납품업체 등록
2013년 1월	Microsoft 파트너 체결
2014년 5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2015년 5월	NCC(Namu Cloud Center)개발
2016년 11월	한국거래소 코넥스 상장
2018년 12월	교보비엔케이기업인수목적(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

2022년 3월	'CCO(Cocktail Cloud on OpenShift)' 발표
2022년 3월	메타버스 합작법인 TNMeta 설립
2022년 11월	나무기술 마곡 R&D 센터 준공 및 본점 이전
2022년 12월	캐나다 법인 설립
2023년 9월	나무인텔리전스 흡수합병
2024년 3월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솔루션(CMP) 'SPERO(스페로)' 출시
2025년 3월	쿠버네티스 기반 IT 인프라 가상화 솔루션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출시
2025년 9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NAA(Namu AI Agent)'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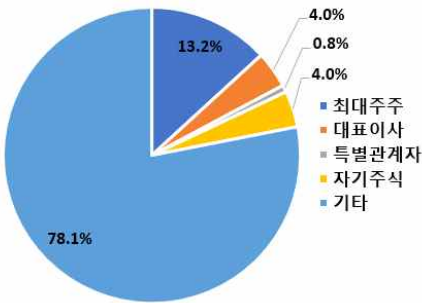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최대주주인 이수병은 200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동사의 대표이사로서 동사를 경영해 왔으며, 2017년 3월부터는 동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최대주주 이수병의 지분율은 13.2%이다. 대표이사 정철은 지분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재우 외 3인의 특별관계자(임원, 계열사임원)이 지분 0.8%를 보유하고 있다. 자기주식 지분율은 4.0%이다.

표 2. 동사 지분구조 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이수병	최대주주	4,556,578	13.2%
정철	대표이사	1,388,238	4.0%
조재우 외 3인	특별관계자	264,649	0.8%
자기주식	자기주식	1,369,436	4.0%
기타	기타	27,027,363	78.1%
합계		34,606,264	100.0%

그림 1. 동사 지분구조 현황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자료: 분기보고서(2025.09.),

동사의 종속기업은 (주)칵테일아이오(구, 아콘소프트(주)), 나무ICT(주), (주)에스케이팩, NAMUTECH JAPAN, NAMUTECH VIETNAM 5개 사이다. (주)칵테일아이오는 클라우드 플랫폼 및 AI 클라우드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종속회사인 NAMUTECH JAPAN, NAMUTECH VIETMAN 이외에, NAMUTECH SINGAPORE, NAMUTECH CANADA LTD 등을 통해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IT서비스 제공 및 클라우드 서비스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 동사 종속회사 현황

상호	설립일	소재지	주요사업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천원)	동사의 지분율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칵테일아이오	2016.07.22	대한민국	Cloud	1,738,000	77.7%	미해당
나무ICT(주)	2019.11.19	대한민국	네트워크	11,397,000	60.0%	미해당
(주)에스케이팩	2015.12.02	대한민국	기계자동화	18,669,000	68.1%	미해당
NAMUTECH JAPAN	2012.09.11	일본	네트워크	2,799,000	100.0%	미해당
NAMUTECH VIETNAM	2020.02.13	베트남	Cloud	179,000	100.0%	미해당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 대표이사

대표이사 정철은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학위와, 일리노이주립대 MBA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삼성전자(주), 한국텍트로닉스(주) 사업부 본부장, 한국NEC(주) 지사장, 텔인터내셔널(주)에서 IT 영업 총괄,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주)에서 IT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4월 동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동사의 역량을 가상화 사업 부문과 클라우드 사업 부문으로 집중하여 동사의 성장을 이끌어왔으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하였다.

■ 주요 사업 분야

동사의 주요 사업 영역은 가상화 사업 부문과 클라우드 사업 부문으로 구분된다. 가상화 사업부문에는 업무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시켜 인터넷 망을 통해 침투하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업무망을 지키기 위한 "망분리 사업", 모바일 업무 환경의 요구와 함께 기존 업무 방식을 개선하려는 "스마트워크 사업", 언제 어디서나 가상의 업무환경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이 있다. 망분리 사업과 스마트워크 사업은 미국 CSG 사의 가상화 기술과 동사의 자체 개발 기술인 'NCC(Namu Cloud Center)' 데스크톱 통합 관리 솔루션을 함께 사용하여 구축 및 공급하고 있으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은 미국 액셀러라이트 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구축 공급하고 있다.

클라우드 사업부문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통합관리 플랫폼인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는 통합 멀티 하이브리드 운영 관리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예: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등)의 특정 클라우드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클라우드간 효율적인 이동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 하이브리드 운영 관리 제품이다.

■ 매출유형별 매출실적

동사는 5개의 중속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매출액은 2022년 447억 원, 2023년 446억 원, 2024년 470억 원이다. 연결회사 중 (주)에스케이팩의 2024년 매출액은 227억 원으로 연결회사 중 매출비중 48.3%를 가지며, 나무ICT(주)의 2024년 매출액은 186억 원으로 연결회사 중 매출비중 39.6%를 가진다. (주)칵테일아이오의 2024년 매출액은 24억 원으로 연결회사 중 매출비중은 5.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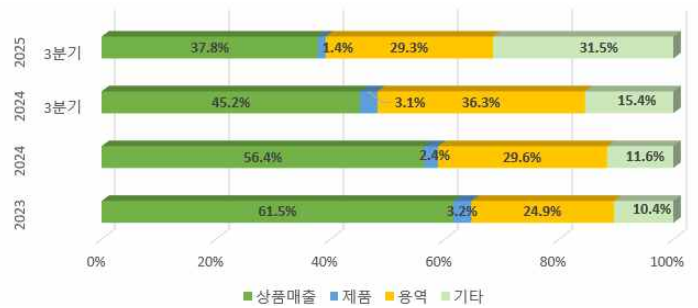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액 구성은 상품, 제품, 용역,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매출은 서버, 스토리지 장비류와 솔루션(클라우드)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 매출은 'NCC'와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 매출을 포함한다. 기타 매출은 SW 라이선스(사용료) 매출을 포함한다.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4년 상품 매출은 251억 원으로 매출비중이 56.4%를 차지하고, 용역 매출이 131억 원으로 매출비중 29.6%를 차지한다. 기타 매출은 51억 원으로 매출비중 11.6%를 구성하고, 제품 매출은 11억 원으로 매출비중 2.4%를 구성한다. 2024년 매출유형별 매출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상품 매출의 매출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용역 매출 및 기타 매출의 매출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5년 3분기(누적) 매출은 2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하였다.

표. 4. 매출유형별 매출실적 (단위: 억 원, K-IFRS 별도 기준) 그림 2. 매출유형별 매출비중 (단위: %, K-IFRS 별도 기준)

사업부문	2023년	2024년	2024년 3분기 (누적)	2025년 3분기 (누적)
상품	283	251	111	81
제품	14	11	8	3
용역	115	131	89	64
기타	48	51	38	76
합계	460	444	246	225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확산 속 PaaS 시장, CMS 시장의 성장 전망

클라우드 운영 환경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전문성과 자동화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 전반에 걸친 전문 역량을 하나의 팀 또는 조직이 모두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확산, 개발, 운영 자동화 요구, 보안,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 등을 지원하는 PaaS, CMS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목표시장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필요한 만큼 자원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 기반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별 분류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CMS(Cloud Management Service),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분된다.

동사의 핵심제품 중 하나인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배포·운영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멀티클러스터, 멀티테넌시, DevOps, CI(Continuous Integration)·CD(Continuous Delivery)를 지원하는 기업용 PaaS 플랫폼에 해당하므로 목표시장을 PaaS 시장으로 선정하였다.

동사의 핵심제품 중 하나인 'SPERO(스페로)'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예: IaaS, PaaS, On-premise, Hybrid)를 중앙에서 관리하며, 자원 모니터링, 비용 최적화, 보안, 운영 자동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기술 구분 상 통합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 Cloud Management Platform)에 해당하므로, 목표시장을 CMS¹⁾ 시장으로 선정하였다.

■ PaaS 시장의 특징

PaaS는 서버 관리, 패치, 업데이트, 보안 설정 등 모든 인프라 계층을 사용자가 직접 책임져야 하지만, PaaS에서는 운영체제(OS), 미들웨어, 런타임환경, 데이터베이스 등 플랫폼 계층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관리해준다.

P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중 하나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행, 관리에 필요한 플랫폼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한다. 개발자는 운영체제, 서버,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등 인프라 관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코드 작성 및 서비스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PaaS가 미들웨어와 런타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컨테이너(Container) 기반 PaaS는 개발자가 직접 런타임 환경까지 패키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도 PaaS의 이점인 관리 용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코드, 라이브러리, 종속성을 모두 패키징하여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실행되도록 보장한다. 또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²⁾ 도구로 수많은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1) CMP(Cloud Management Platform)는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편, CMS(Cloud Management Service)는 클라우드 관리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표현으로, CMP와 CMS는 동일한 시장의 범주에 속한다.

2)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작업을 조정하고 관리하여 복잡한 워크플로를 자동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 개별 자동화된 태스크들을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조율하는 것

배포, 확장(Scale In/Out),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핵심 기능을 PaaS에 제공한다.

또한, PaaS에서는 DevOps³⁾ 도구, 자동 확장(Auto-Scaling), 모니터링, 로드 밸런싱 기능이 플랫폼에 내장되어 있어, PaaS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운영의 복잡성을 줄이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간과 배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PaaS에서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반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버리스(Serverless) 모델, AI/ML 통합 개발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제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멀티클러스터·멀티테넌시 지원 플랫폼의 보유 여부는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 의료 등 규제와 보안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는 PaaS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CMS 시장의 특징

기업들이 CMP를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비용을 최적화하고 운영의 안정성 및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CMP는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예: AWS, Azure, Google Cloud 등)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업무 특성과 보안 요건, 비용을 고려하여 등 서로 다른 벤더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화, 분산된 인프라는 기업에게 이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서비스별 관리 도구가 상이하므로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CMP는 멀티클러스터 환경에서의 가시성 확보, 운영의 자동화, 자원의 최적화 등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CMP 시장은 비용, 보안, 거버넌스 중심의 운영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클라우드 벤더별 복잡한 요금체계는 과다 과금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비용의 모니터링, 예측,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FinOps⁴⁾ 기능이 CMP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보안 규제(금융, 공공, 의료 등)와 개인정보보호 요구의 강화는 보안 정책 자동화, IAM(권한관리),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기능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CMP 도입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클라우드 운영 환경은 점차 고도화되며 전문성과 자동화에 대한 요구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 전반에 걸친 전문 역량을 하나의 팀 또는 조직이 모두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CMP는 운영 자동화(AutoOps), 모니터링 및 이상 감지, 장애 예측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벤더와 고객사, 공급사 간의 복잡한 서비스를 단순화하고, 전체 서비스를 중앙집중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CMP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복잡성을 제거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서, 기업의 효율성과 민첩성, 보안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디지털 전환(DX) 실행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Global Platform as a Service(PaaS) Market은 2024년 898억 달러

를 의미한다. IT 분야에서는 특히 컨테이너 관리(쿠버네티스), 서버 배포, 데이터 처리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 DevOps는 단순한 도구나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Development)과 IT 운영(Operations)팀 간의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문화, 방법론, 그리고 관행의 집합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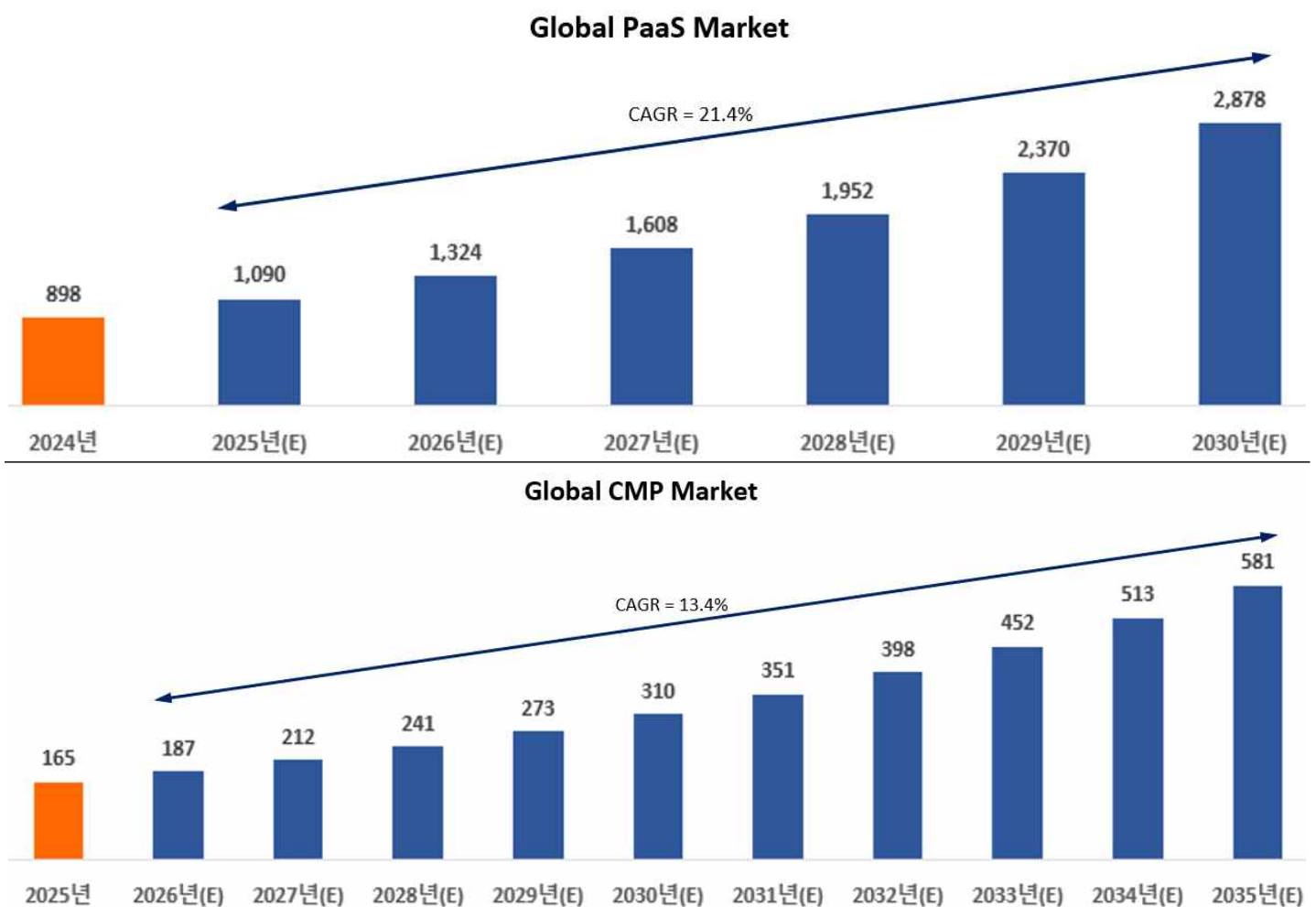
4) FinOps는 재무(Finance)와 운영(Operation)을 합친 용어로, IT, 재무, 비즈니스 팀이 협력하여 클라우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운영 프레임워크이자 문화를 말한다.

규모를 형성하였고, 연평균 성장률(CAGR) 21.4%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2,878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Business Research Insight에 따르면, Global Cloud Management Platform Market은 2025년 165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였고, 연평균 성장률(CAGR) 13.4%로 성장하여 2035년에는 581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글로벌 PaaS 시장, 글로벌 CMS 시장 규모 및 성장성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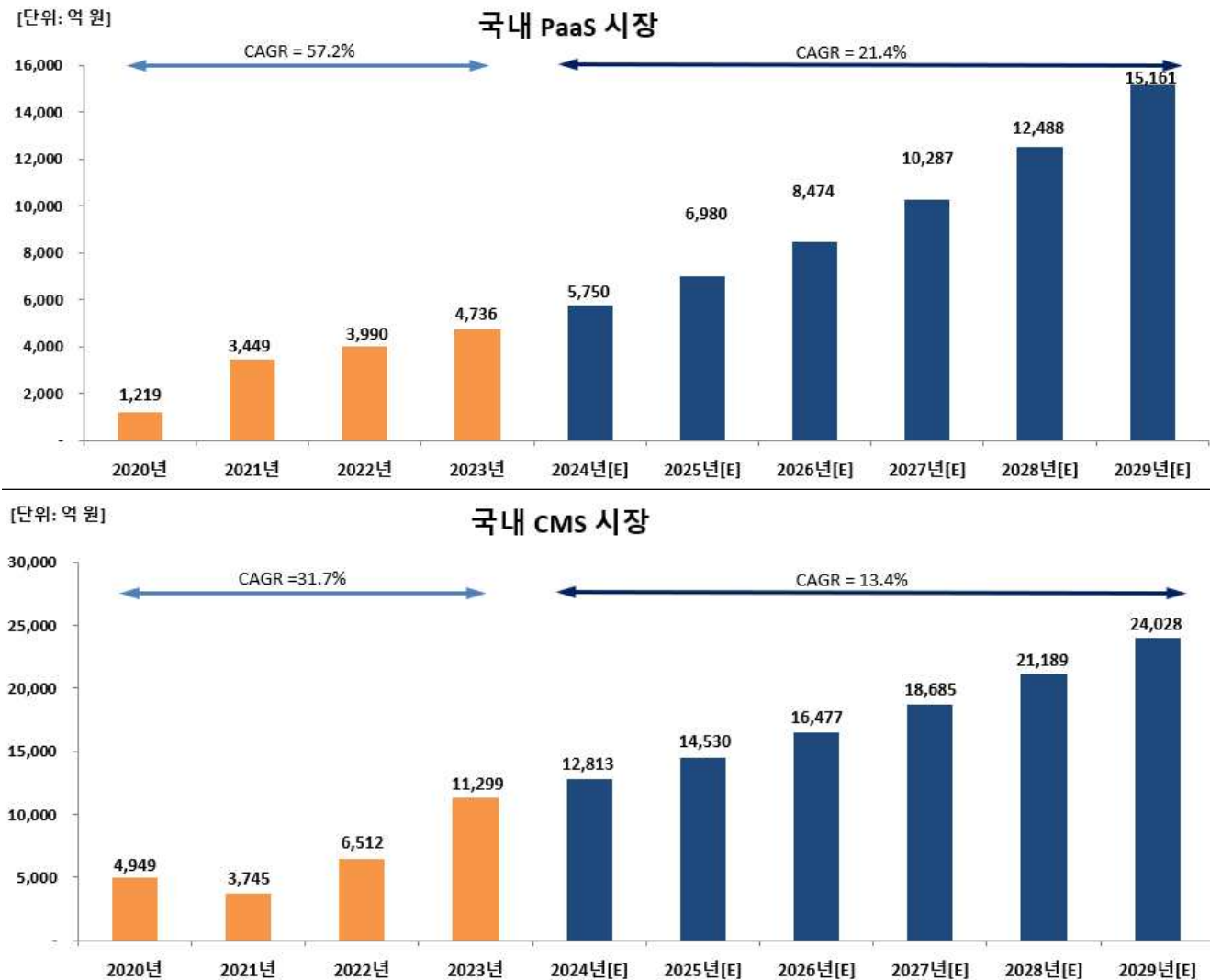
자료: Grand View Research 'Platform As A Service Market, 2024, Business Research Insight 'Cloud Management Platform(CMP) Market,2025',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2024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PaaS 시장은 2020년 1,219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57.2%로 성장하여 2023년 4,736억 원 규모를 형성했다. 글로벌 Paa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 21.4%를 국내 시장에 준용할 때, 국내 PaaS 시장은 2029년 1조 5,161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클라우드산업 분류체계 상 CMP는 CMS 시장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자료에 의하면, 국내 CMS 시장은 2020년 4,949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31.7% 성장하여 2023년에는 1조 1,299억 원 규모를 형성하였다. 글로벌 CM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13.4%를 국내 시장에 준용할 때, 국내 CMS 시장은 2029년 2조 4,028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PaaS 시장, 국내 CMS 시장 규모 및 성장성

(단위: 억 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2024)',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목표시장 내 참여기업 현황

글로벌 PaaS 시장 내에는 Alibaba Cloud Computing Ltd, Amazon Web Services, Inc., Broadcom Inc., Google LLC, IBM Corporation, Microsoft, Salesforce, Inc., SAP SE, ServiceNow, Inc., Tencent Holdings Limited 등의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CMP 시장 내에는 VMware, Inc., CoreStack, Inc., IBM(Red Hat 포함), HashiCorp, Inc, 등의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PaaS 시장 내에는 티맥스클라우드(주), (주)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주), NHN클라우드(주) 등의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CMP 시장 내에는 베스핀글로벌(주), 메가존클라우드(주), GS네오텍(주), (주)이노그리드 등의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III. 기술분석

클라우드의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동사는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위한 풀스택 아키텍처를 보유한 기업으로, 'SPERO(스페로)'를 통한 인프라 통제,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를 통한 플랫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대표 제품인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후속 제품의 출시는 동사의 기술적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있다.

■ 소버린 AI를 위한 풀스택 아키텍처

현재 IT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패권 다툼이 한창이다. 이 경쟁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미래 산업의 표준과 인프라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통제권 상실과 예측 불가능한 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버린 AI(Sovereign AI)란 인공지능 기술과 인프라를 특정 국가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 통제, 운영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자립을 넘어 자국의 데이터를 국경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 규제와 법규를 준수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AI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한다.

동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소버린 AI를 실현하기 위한 완전한 풀스택 아키텍처로, 'SPERO(스페로)',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 'Namu LaaS(Namu LLM as a Service)'로 구성된 3계층 통합 플랫폼을 제시한다.

그림 5. 동사의 소버린 AI를 위한 풀스택 아키텍처



자료: 동사 홈페이지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와 'SPERO(스페로)'는 모두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솔루션이지만,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가 주로 PaaS 영역을 담당하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환경에 집중한다면, 'SPERO(스페로)'는 CMP 영역을 담당하며 인프라 자원과 클라우드 비용 통합 관리에 집중한다.

먼저 'SPERO(스페로)'가 데이터 주권 정책에 따라 GPU 서버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자원을 할당하고 통합 아키텍처를 준비하면, 그 위에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가 AI 개발 및 운영에 최적화된 쿠버네티스 환경을 자동으로 구축하고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플랫폼 위에서 'Namu LaaS'가 기업의 내부 데이터와 시스템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지원 도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소버린 AI에서 추구하는 완벽한 통제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게

한다. 'SPERO(스페로)'를 통한 인프라 통제,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를 통한 플랫폼 독립성 확보, 'Namu LLS'를 통한 데이터 및 AI 애플리케이션 주권 보장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연결될 수 있다.

■ 'SPERO(스페로)':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통합 관리

'SPERO(스페로)'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추상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메타 클라우드 기술이 도입되었다. 프라이빗·퍼블릭·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까지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여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환경을 지원한다.

'SPERO(스페로)'에는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하고 템플릿 기반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워크가 지원되며, 사용자나 팀에서 클라우드 자원을 요청하면, 관리자의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 정책에 따라 자원이 할당되도록 자동화된 자원 승인 워크플로우가 제공된다. 또한, 'SPERO(스페로)'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SaaS)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 관리, 유지보수하는 SMO(Service Management & Orchestration) 솔루션 역할을 할 수 있다.

'SPERO(스페로)'는 기업의 클라우드 보안성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게 하고, 기업들에 부여되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를 지키는데 용이한 지원 도구가 되며,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통해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을 피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기술적 독립성의 기반이 된다. 특히, 'SPERO(스페로)'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의 복잡성을 줄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오케스트레이션 지원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Cloud-Native Platform)이며, 특히 컨테이너 기반의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통합 관리와 DevOps 자동화 등에 강점이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환경을 의미한다.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는 것을 넘어,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림 6.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의 아키텍처



자료: 동사 홈페이지

인프라스트럭처/클라우드 계층은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가 관리하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베어 메탈(Bare Metal) 서버, HCI(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예: AWS, Azure, Google Cloud)를 포함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는 어떤 인프라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일관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한다.

클러스터 통합관리 계층은 단일 대시보드(GUI 기반 UX)에서 다중/다형의 클러스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멀티 클러스터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팀이나 조직별로 독립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권한을 중앙에서 제어하여 보안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멀티테넌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인프라 자원에서부터 컨테이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풀 스택(Full-Stack)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클러스터 통합관리 계층은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의 핵심 기능들이 집합된 계층이다.

데브옵스 워크스페이스(DevOps Workspace) 계층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배포, 운영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계층이다.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존재하며, CI·CD 자동화 파이프라인은 소스 코드로부터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배포, 업데이트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DevOps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는 자주 사용되는 미들웨어, DB, 런타임 환경 등의 컨테이너 이미지 및 배포 구성을 템플릿화하여 원클릭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AI/Big Data, 엣지 컴퓨팅 등 세부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는 계층이다. AI/Big Data는 AI 및 빅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GPU, 멀티 네트워크 등의 애드온(Add-On) 및 특화된 클러스터 구성을 지원한다. Edge 컴퓨팅은 엣지 환경에 특화된 클러스터 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분산된 환경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

미국의 VMware, Inc.는 2023년 Broadcom Inc.에 인수된 후 대규모의 가격 정책 개편을 실행했다. 기존 영구 라이선스 모델을 폐지하고 구독 기반 모델로 완전히 전환했으며, 최소 구매 단위(최소 GPU 16코어) 기준을 도입하여 기존 고객사들에 대한 가격 부담을 가중시켰다.

국내 기업들은 VMware, Inc.와 같은 가상화 선도 업체의 가격 인상, 운영 방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오픈 소스나 경쟁사 솔루션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는 기업에서 기존 도입한 가상머신(VM) 중심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한다.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 VMware, Inc.의 주력 시장인 가상화 인프라(VDI, DaaS)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대응가능한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PI) 솔루션을 제공하며, 오픈 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유연한 구조 위에 직관적인 UI/UX를 제공해 기존 가상화 시스템에 익숙한 IT 운영자도 별도의 교육 없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복잡한 스크립트나 설정 없이도 리소스 배포, 마이그레이션이 간편하며, 고가용성(HA) 기반 멀티 테넌시 환경을 기본으로 지원해 자원 활용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 'Cocktail APM(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Cocktail APM'은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Cocktail APM'은 쿠버네티스 기반 인프라에 특화된 앱 퍼포먼스 모니터링 도구로 RED(Rate, Error, Duration) 메트릭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병목 구간 시각화, 그리고 허니콤 뷰 기반 대시보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Cocktail APM'은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와 연계 시, 인프라 레벨부터 서비스 레벨까지 통합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장애 대응 속도는 물론, 운영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컨테이너 기반의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와 쿠버네티스 환경에 최적화된 'Cocktail APM'은 직관적인 대시보드와 다양한 분석 기능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한다.

■ 'Namu LaaS': 기업 맞춤형 LLM 기반 지능형 에이전트

'Namu LaaS'는 기업이 자체 데이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특화된 LLM 기반의 지능형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단순히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복잡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지원한다.

'Namu LaaS'는 기업의 통제된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민감한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 없이 안전하게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검색 증강 생성(RAG) 등의 기술을 통해 LLM이 문서와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를 외부 유출없이 선별된 지식 온톨로지 기반에서 정보를 접근하고 인용할 수 있다.

■ 'NCC(Namu Cloud Center)': 데스크톱 가상화를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

NCC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Virtual Desktop Infra)를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이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VDI를 운영하기 위한 워크스페이스 포털(NCC-Workspace)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동사는 CSG 사의 핵심 브랜드인 Citrix의 가상화 엔진과 프로토콜을 기반 기술로 채택하되, 국내 기업의 환경에 맞게 관리·운영 측면에서 자동화 관리가 가능한 NCC 기술을 개발하였다. NCC는 사용자 접근 제어, 자원 할당/반납 자동화, 통합 로그인 등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제공한다.

VDI를 이용한 망분리 기술의 핵심은 하나의 PC에서 VDI 등의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 환경과 인터넷 환경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논리적 망분리 기능이다.

한편, NCC는 VDI 환경을 위한 통합 백업 및 복구 자동화 솔루션인 NCC-VBR(Virtual Backup & Recovery)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NCC-VBR은 가상 데스크톱 환경의 백업과 복구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NCC-VBR은 가상 머신(VM) 자체의 OS 이미지를 백업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VM을 신속하게 생성하거나 장애 발생 시 환경 전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VDI 환경 내의 사용자 데이터(문서, 파일 등)는 NAS(Network Attach Storage)와 같은 스토리지에 백업된다. NCC-VBR은 플랫폼 내에서 백업/복구 정책 설정, 예약, 모니터링 및 복구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로 제공하여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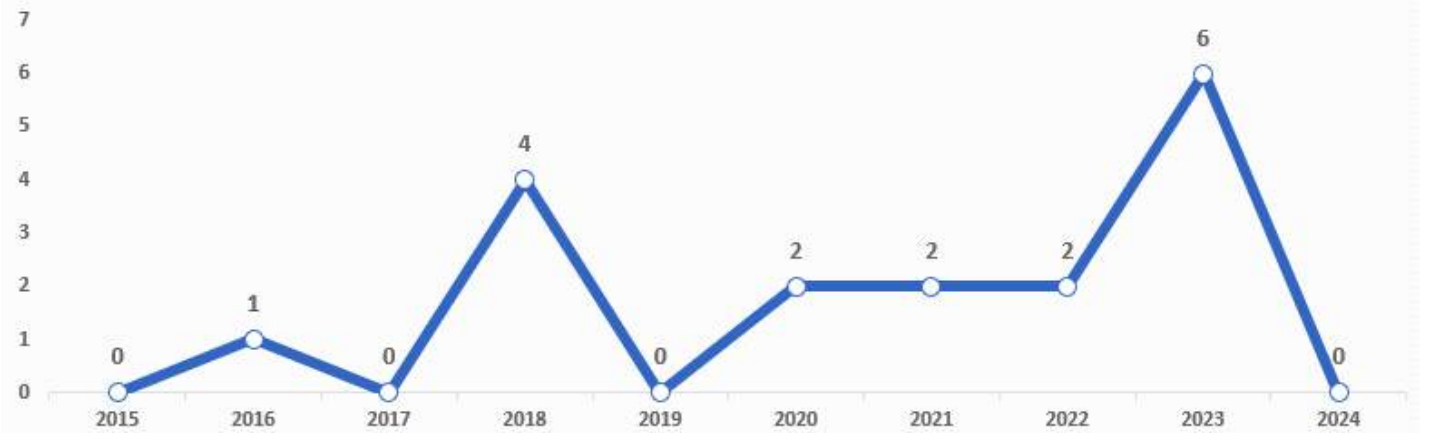
VDI 및 NCC 기술은 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방/연구기관 등 정보 유출 방지가 매우 중요한 기업/기관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크며, 이는 VDI 환경의 업무 연속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한다.

특허 활동 동향

KIPRIS(2025.11.18.)에 따르면, 당사는 국내에 총 17건의 특허를 출원, 15건이 등록되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17건의 특허를 출원, 15건이 등록되었다.

출원 개수

(단위: 개)



자료: KIPRIS(2025.11.18.)

기술부문별 특허동향

당사가 보유한 특허의 IPC코드를 통해 파악한 주요 기술부문은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 등으로 파악된다. (단, 기술 부문별 최대 5건씩만 표시하였다.)

■ [G06F]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

특허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1020160169515	빅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실시간 분석 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	2016.12.13
1020230111329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OS 성능 지표 분석 방법	2023.08.24
1020230020492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이언트 운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정책의 자동 처리 및 배포 방법	2023.02.16
1020230111340	가상OS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모니터링 방법	2023.08.24
1020230020490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가상OS 다중 장애 발생 모니터링 및 병렬 처리 방법	2023.02.16

용어 정의

- 출원 특허: 특허를 받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상태
- 등록 특허: 심사를 통과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
- 유효 특허: 현재 기준으로 유효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등록 특허
- IPC: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

기술특허 빅데이터 분석(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는 평가대상업체의 핵심 기술분야에서 특히 기술 키워드 변동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분석 결과이다.

대상 기술분야의 최근 20년간의 특허 정보를 10년 단위로 비교하여 과거 대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분야 내 키워드 수가 많을수록 키워드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

2005년 ~ 2014년

2015년 ~ 2024년



IV. 재무분석

2025년 3분기 턴어라운드와 매출액, 영업이익 개선 기대

2025년 3분기를 기점으로 큰 폭의 매출 증가와, 영업 흑자 전환 등 턴어라운드가 있었다. 영업이익률 개선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단기적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전방산업인 기업들의 AI·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 영역에 아우르는 기술지원이 가능한 동사에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

동사의 2022년 매출액은 1,062억 원, 2023년 906억 원, 2024년 914억 원을 기록하며, 동기간 매출액 증가율은 12.4%, -14.7%, 1.0%이다. 2023년~2024년 글로벌 경기의 둔화로 기업들의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동사의 매출 역시 다소 영향을 받아 부진하였으나, 최근 AI·클라우드 관련 투자가 늘어나며 동사의 매출 역시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25년 3분기(누적) 기준으로 동사는 매출액 67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17.1%로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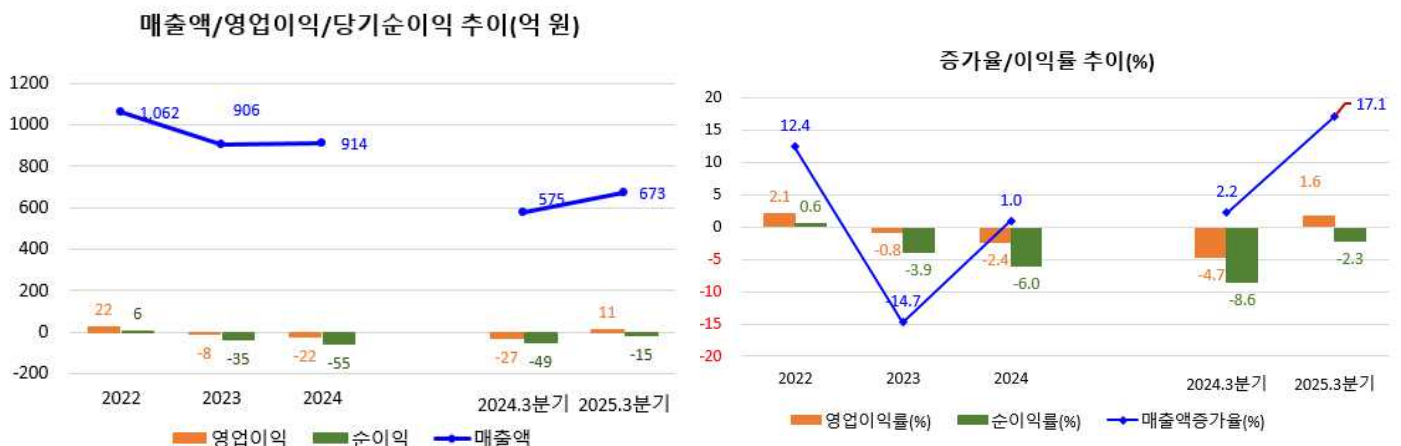
연결회사인 나무ICT(주)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부문이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주)에스케이팩은 2025년 3분기 매출이 117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 2025년 3분기 영업이익률 상승 및 손실 축소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22억, 2023년 -8억, 2024년 -22억 원으로 2개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다가, 2025년 3분기(누적) 기준으로 영업이익 11억 원을 달성하며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22년 2.1%, 2023년 -0.8%, 2024년 -2.4%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3분기(누적)을 기준으로 1.6%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을 했다. 2025년 3분기(누적)에는 원가율 하락과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감소 등으로 비용 절감이 이어져 영업이익을 개선했으며, 금융수지 개선과 지분법손실 감소에 따라 순손실 폭도 축소되고 있다.

그림 7.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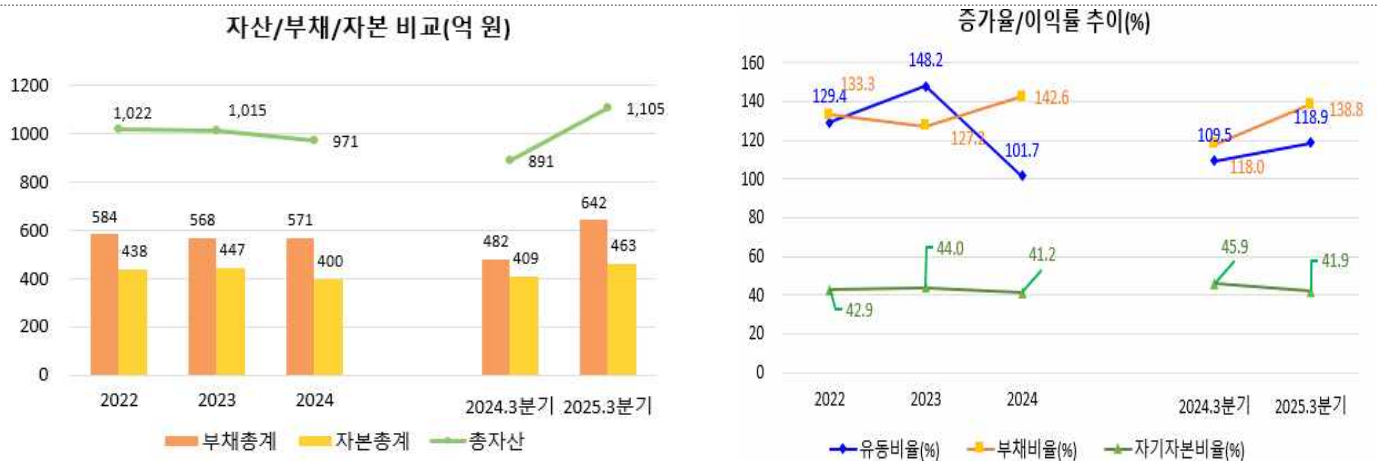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자본의 확충으로 재무구조 개선

동사의 2023년~2024년 발생한 당기순손실로 인해 총자산 규모가 2022년 1,022억 원에서 2023년 1,015억 원, 2024년 971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5년 3분기(누적) 기준으로 총자산이 1,105억 원으로 회복하였다. 동사의 부채는 2022년~2024년 약 580억 원 규모를 유지하다가 2025년 3분기(누적) 기준으로 642억 원 규모로 부채가 확대되었다. 다만, 자본총계 역시 늘어나며 부채비율은 2024년 142.6%에서 2025년 3분기(누적) 138.8%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유동비율 역시 2024년 101.7%에서 2025년 3분기(누적) 118.9%로 상승하며 단기적 재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림 8.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표 5. 동사 요약 재무제표 (3개년)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3분기 (누적)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	1,062	906	914	575	673
매출액증가율(%)	12.4	-14.7	1.0	2.2	17.1
영업이익	22	-8	-22	-27	11
영업이익률(%)	2.1	-0.8	-2.4	-4.7	1.6
순이익	6	-35	-55	-49	-15
순이익률(%)	0.6	-3.9	-6.0	-8.6	-2.3
부채총계	584	568	571	482	642
자본총계	438	447	400	409	463
총자산	1,022	1,015	971	891	1,105
유동비율(%)	129.4	148.2	101.7	109.5	118.9
부채비율(%)	133.3	127.2	142.6	118.0	138.8
자기자본비율(%)	42.9	44.0	41.2	45.9	41.9
영업활동현금흐름	-35	35	-8	3	68
투자활동현금흐름	-147	-38	31	-39	-73
재무활동현금흐름	169	49	-5	-9	45
기말의현금	76	122	142	78	181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성장 동력 확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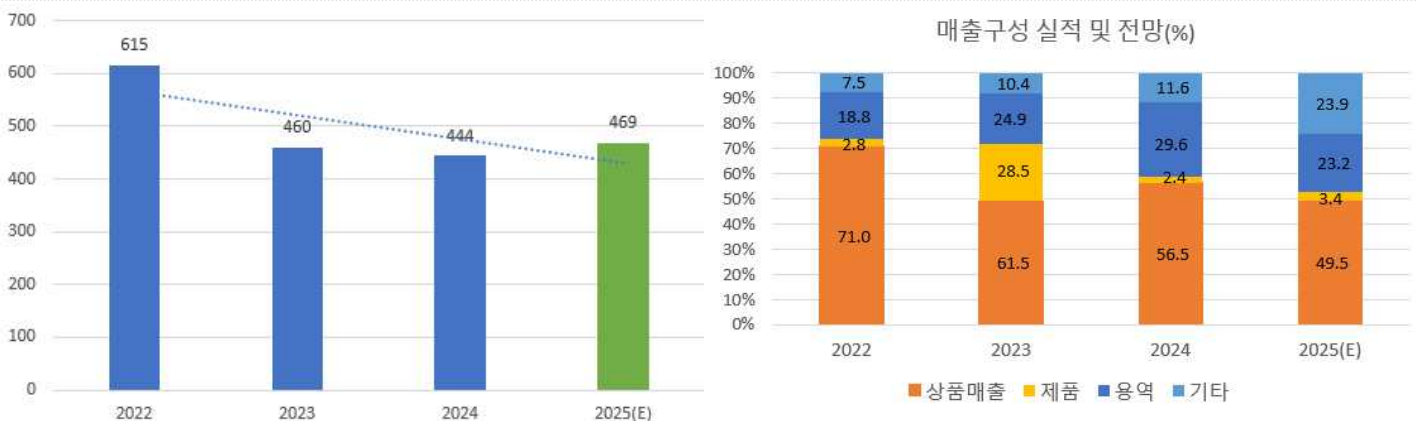
기업들의 IT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며 AI 및 클라우드 산업이 각광 받고 있다. 기업들은 GPU 등 고성능 컴퓨팅(HPC)에 대한 투자,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증가, 클라우드 관리 및 보안 솔루션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해당 시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와 'SPERO(스페로)'를 기반으로 공공,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올해 출시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NAA(Namu AI Agent)'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고도화된 AI 환경 통합에 기여할 신제품이다. 'NAA'는 기업이 독립적인 AI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제조, 바이오 분야 중심의 적용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은 올해 4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동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바 제조 현장에 특화된 AI자율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동사는 자회사 (주)에스케이팩의 코스닥 상장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주)에스케이팩의 수주잔고는 전년 91억원에서 176억원으로 92.4% 증가하였고 동사의 (주)에스케이팩 지분율은 68.1%로 이에 따른 동사의 성장과 수익 확보 또한 기대된다.

그림 9. 동사 매출전망 및 매출구성

(단위: 억 원, K-IFRS 별도 기준)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표 6. 동사 매출유형별 연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별도 기준)

구분	2022	2023	2024	2025(E)	2025.1Q	2025.2Q	2025.3Q	2025.4Q(E)
매출액	615	460	444	469	77	69	80	243
상품매출	436	283	251	232	37	14	31	150
제품	17	15	11	16	1	1	1	13
용역	116	115	131	109	23	22	19	45
기타	46	48	51	112	16	32	29	35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주: 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대표 제품 'Cocktail Cloud', 'SPERO'뿐 아니라 'Cocktail Virt', 'NAA'등 신규 제품군 성장

가상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 솔루션으로서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 등 제품군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지원 사업의 참여업체로 선정된 점, 'Namu LaaS'를 개량한 'NAA(Namu AI Agent)' 등 신제품의 출시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VMware, Inc.의 가격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외 기업 동향

Broadcom, Inc.는 2023년 610억달러(약 90조원)를 들여 가상화 시장 선두 주자인 VMware, Inc.를 인수하고, 그해 말 새로운 가격 정책을 내놓았다. VMware, Inc. 제품군을 통합하고 기존 라이선스를 구독제로 전환했으며, 가상머신(VM) 가격 책정 기준도 CPU에서 코어 기준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 고객의 비용부담이 2~5배 까지 높아진 상황으로 추산된다.

제3자 유지보수 서비스 전문기업 리미니스트리트가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존 VMware, Inc. 고객 가운데 98%는 이미 VMware, Inc. 환경의 일부에 대해 대안을 사용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또 응답자 92%는 향후 12~18개월 이내에 VMware, Inc. 가격 추가 인상도 예상했다. 그동안 서버 가상화 등을 위해 VMware, Inc.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온 기업·기관들은 대안을 모색 중이다.

동사 역시 쿠버네티스 기반 가상화 솔루션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를 공개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안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Cocktail Virt(칵테일 버트)'는 컨테이너와 가상머신(VM)을 하나의 환경에서 동시에 생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상화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 보유 기술 제품군은 이러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AI 컴퓨팅 자원 기반 강화 및 제조 AI 고도화 전략

동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산업별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이며, 동사는 제조 현장에 특화된 AI 자율제조 기술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사는 현재 GPU·엣지 기반의 실시간 추론 검증을 통해 모델의 안정성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포장설비와 바이오 제조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으로 확장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Cocktail Cloud(칵테일 클라우드)'와 통합 관리 플랫폼 'SPERO(스페로)'가 함께 적용돼, AI 학습·추론·자원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구현했다.

■ 기업형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나무 AI 에이전트' 전략

동사는 자체 개발한 지능형 AI 플랫폼인 나무 AI 에이전트를 통해 기업형 AI 시장을 타겟한 제품군 'NAA(Namu AI Agent)'를 출시했다. 'NAA'는 'LLMaaS'를 확장 구현한 것으로, AI 인프라부터 모델 실행, 에이전트 구성, 서비스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해 기업이 독립적으로 AI 서비스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I 기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 신제품 출시는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투자의견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한국거래소(KRX)



자료: 네이버증권(2025.11.1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나무기술	X	X	X